

본당 소식

♣ 2025년 재유럽 사목자 회의 안내

- 일시 및 장소: 05월 19일~23일, 밀라노
- 성모의 밤 및 미사: 05월 21일, 저녁 7시, 오라토리오

♣ 성가대 정기 연주회 < Giubileo _ L'Amore e La Gioia >

- 5월 24일(토) 17:30, 오라토리오
- 많은 홍보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모임/회의

- 청년회의: 5월 04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사목회회: 5월 11일 (차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8.10€ • 교무금 00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장보인 비비안나

전례 성가

- 입당 :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 봉헌 :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 : 157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파견 : 245 (맑은 하늘 오월은)

전례 봉사

이번 주일(5월 4일)	다음 주일(5월 11일)
1독서: 장보인 비비안나	1독서: 윤다혜 아멜리아
2독서: 김영수 빈첸시오	2독서: 남궁형 미카엘
복 사: 안태리 소화데레사, 강윤아 헬레나	복 사: 번가인 헬레나, 문수빈 미카엘라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5월 4일 (백) 부활 제3주일 (생명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주 님, 저 를 구 하 션 으 니, 당 신 을 높 이 기 리 나 이 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1독서 (사도행전 5,27ㄴ-32.40ㄴ-41)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27 신문하였다.

28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29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30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31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32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40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41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5,11-14)

나 요한은 11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
 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요한 21,1-14)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
 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뺐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8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9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0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11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선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14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어, 모든 사람이 노동 안에서 저마다 성취감
 을 얻고 가정의 품위를 지키며 인간적 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이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 관계망을 잘
 이해하고, 민족적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 화합을 이끄는 도구로 활용하게 하소서.
3. 생명 주일을 맞아,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
 강을 주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의 보금자리인 가정들에 강복하시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이웃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굶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